



인사말

몽골 해외의료지원사업, 역사의 그 현장

김 형 옥 단장 / 강남성모병원 피부과



- 해외의료지원단장 출정식 인사말

한국가톨릭의료협회 '2006 몽골 해외의료지원사업' 추진을 앞두고 단원들 간의 결의를 다지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울러 협회 해외의료지원사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최영식 회장 신부님 이하 협회 관계자 여러분과 회원병원 그리고 각 직능협회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해외의료지원사업을 도와주신 협찬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인사 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외의료지원사업은 우리 협회 및 회원병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복음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과묵한 저에게 단장의 직무를 맡겨주신 것은 크나큰 주님의 은총이고 개인에게는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장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간 협회의 해외의료지원사업은 10년이 넘도록 전임 단장님이시고 현재 상임 고문이신 김종호 신부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열정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협회는 금년도 사업의 확장 계획에 따라 몽골의료지원사업을 가톨릭의료인의 정서를 한껏 담아 문화행사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사업 참여자를 공모한 결과 현재까지 각 부문

의 회원들로부터 65명 정도가 신청을 해왔고 단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의 제한으로 이번 몽골 프로젝트에는 저를 포함해 17명만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분들께도 향후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몽골에서의 활동은 환우들에 대한 치유봉사는 물론이고 직접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사도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우리는 봉사기간 동안 겸손의 미덕을 마음에 새겨 실천하며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배려하고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를 기억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진실되게 행동한다.

단원 모두는 주는 자의 오만을 버리고 오히려 겸양지덕의 자세와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서 참여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의 체험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단원들을 위해 성원해 주시고 기도 중에서도 기억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해외의료지원사업 평가보고회 인사말(요약)

출정식 인사를 통해 저와 단원들의 각오를 말씀드리던 그 시간을 회상하며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 벅찬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협회의 해외의료지원사업단은 2006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난 2006년 9월 4일부터 12일까지 8박9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140km 떨어진 곳, 자갈란트 면에서 의료봉사와 문화행사를 통해 복음화를 실천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실제 경험한 몽골은 60년대 우리의 생활상을 연상케 할 정도로 국민의 대다수는 기초적인 의료수혜를 받을 수 없었고 물자부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손길 모든 것이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되어 우리의 보람도 정말 컸습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2007년 사업은 보다 체계적이고 생명력 있는 콘텐츠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전시 위주의 사업과 떠돌이식 사업을 배제하고, 현지의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봉사와 문화행사를 통해 참된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여 복음화를 실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원들의 경험과 생각을 전하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특집의 다른 쪽지에서 소개할 것입니다.

끝으로, 몽골 해외의료지원사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최영식 회장 신부님 이하 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함께한 단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